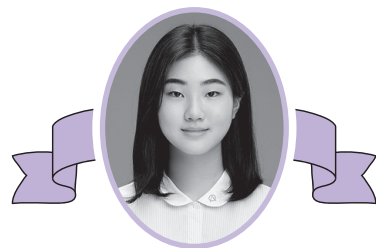


동상





사소한 것



송예진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 우리의 국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연환경은 놀라울 만큼 호전되었다. 하늘을 뒤덮던 미세먼지대신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이 자리 잡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동물과 생명체까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장시간의 활동 중단으로 이렇게 나아짐에 경악하기도 하고 지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자연보호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러 다니는 것 외에도 재활용 분류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대중교통 이용은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아무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요즈음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푸른 하늘과 함께 좋아지는 기분, 맑은 공기와 함께 개운해지는 나날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아마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어나가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다. 며칠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에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도 아이와 함께 쓰레기를 줍고 계셨다. 나는 항상 ‘아, 나도 쓰레기를 주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것을 사소하다고 넘기기에는 그의 용기가 너무나 예뻐다. 그 용기가 하늘을 덮어도 좋다고 생각될 만큼, 모두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니까. 모두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 상황을 좋아하는 나와 다르게 이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답답한 마스크와 마스크를 써도 제한되는 범위, 짜증날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곳곳을 누빌 수 있게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쓰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겁먹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미 전염병이라는 것에 여러 번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또 다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당장에 사람들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 장면 중 버스나 지하철 속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끝날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의 근원은 사소한 것이다. 나는 이 사회가 모순적이라 생각한다. 항상 자연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에어컨과 자동차에 들 비용만 생각하여 방치하다가도 이렇게 찰나에 보인 희망만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자부심을 부추긴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다. 항상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저 내가 안타까워하는 축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날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려 한다.